

# 로봇청소기 해킹 우려 확산... 韓, 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

中 에코백스 '디봇 X2' 해킹 논란

국내 가전업계 데이터 보호 총력  
삼성 자체 플랫폼 '녹스' 확대 적용  
LG 표준 보안개발 프로세스 반영

최근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해킹되어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IP(인터넷)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사 제품에 적용된 첨단 보안 기술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가정집 곳곳에서 중국 에코백스사의 로봇청소기 '디봇 X2'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스웬슨은 외부인이 기기를 원격 조종하거나 기기를 해킹해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욕설을 하는



비스포크 시스템



LG 로보킹 AI 올인원

LG전자

걸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가정에서는 로봇청소기가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에코백스는 자체 조사 후 피해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고, 해킹범의 IP 주소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코백스 측은 ABC뉴스를 통해 "에코백스 시스템이 침해돼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해킹의 원인이 자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를 잘못 관리한 소비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IT 전문가들은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IP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P 카메라는 가정집 돌봄용이나 상업·공공시설 등에 ব্যবহার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 유통된 IP 카메라 80%는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IP 카메라는 제조사가 서버·기기에 사용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백도어'를 숨어둔 제품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기들

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같은 우려 속에, 중국산 제품이 장악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보안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 플랫폼인 '녹스(Knox)'를 통해 로봇청소기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녹스는 원래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TV와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IoT 가전 기기에도 적용돼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녹스는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을 스마트싱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며,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다중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때 보관된 데이터도 24시간 후 자동 삭제돼 사용자 사생활을 해킹 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실시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획득하며 보안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LG전자 역시 자체 보안 시스템인 'LG 쉴드(LG Shield)'를 통해 IoT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청소기에 고급 암호화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LG 표준 보안개발 프로세스(LG SDL)'도 로봇청소기에 적용해 데이터 유출방지에 힘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사용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현대차·기아, 로봇틱스 분야 산-학-연 협력 고도화

'로봇틱스 공동 연구소' 설립  
서울대, 포항공과대, KIST 참여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로봇틱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현대차·기아는 서울대학교와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이동형 양팔로봇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로봇 연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을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산학협력 전문 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향후 3년 동안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을 운영하며 이동형 양팔로봇의 기술을 내재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 연구 기관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로봇틱스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은 공동 연구실 내에서 로봇 하드웨어 분야를 맡는다. 로봇틱스랩은 개발중인 로봇 손이 더욱 복잡한 형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동형



(왼쪽부터) POSTECH 산학협력단 김종규 단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김영오 교수,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한국과학기술원 AI·로봇연구소 김익재 소장이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 설립'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양팔로봇의 자율 이동과 작업 수행능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힘을 쏟는다.

서울대학교는 유리하고 같은 투명 물체를 조작하기 위한 로봇의 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등록되지 않은 물체도 잡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다.

POSTECH은 사람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할 때 필요한 원격 햅틱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비정형 물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물 조작 인식 기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탠다.

로봇틱스 공동 연구실은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이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의미는 물론 로봇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들은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미래 서비스 로봇틱스 시장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동형 양팔로봇' 기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 로봇 연구 기관들이 협력하는 만큼 기술을 고도화해 다양한 서비스로봇틱스 시장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두산 하이엔드 CCL 대거 공개

두산이 대만에서 하이엔드 CCL 마케팅 활동 강화에 나선다.

두산은 오는 2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TPCA Show Taipei(대만 전자회로기판 박람회)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TPCA Show Taipei'는 전자회로기판(PCB) 및 회로설계, 반도체패키징 등과 관련된 대만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 두산은 ▲통신용 CCL ▲광모듈(Optical Module)용 CCL ▲반도체(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지용 CCL 등의 하이엔드(High-end) 제품과 함께 신사업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발진기(MEMS Oscillator)도 선보인다. /차현정 기자

## 삼성전자, 인공지능 TV '생성형 배경화면' 선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TV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인 '생성형 배경화면' 기능을 23일 한국에 선보인다.

적용모델은 2024년형 네오 QLED이디(Neo QLED)와 QLED다. 생성형 배경화면은 이번 달 한국, 미국, 유럽 주요 국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생성형 배경화면은 타이젠 OS가 탑재된 삼성 AI TV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이미지 제공 기능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이미지를 4K 화질로 제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삼성 AI 기술로 부자연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고려아연 "영풍·MBK 시세조종 행위 여부 조사해야"

금감원 진정서 제출... "가처분 악용"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

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

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